


오늘의 유머

■ 열렬결에
회사에 출근한 남편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낯선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누구시죠?”
“이 집 파출부인데 누구 바꿔 드릴까요?”
“파출부요? 주인 아줌마 좀 바꿔주시겠어요?”

“남편분하고 지금 침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데요.”
화가 난 남편이 말했다.

“지금 남편이라고 하셨나요?”
“네. 야근하고 방금 오셨다고 하던데요.”

그러자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쩐지... 저기 현장을 잡아야겠는데. 사례는 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두 사람이 일을 벌이면 둘째로 떠나 남자를 기절시키세요!”

망설이던 파출부가 잠시 자리를 뜬 뒤 다시 수화기를 들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둘 다 기절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잘하셨어요. 내가 갈 때까지 두 사람을 끓여 두세요. 거실 오른쪽에 있는 담옹도실에 끓이 있으니 빨리 하세요!”

“네? 담옹도실요? 담옹도실 없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말했다.

“저기 123-4567번 아닙니까?”

■ 어떤 화자

기발고사가 끝난 후 성적표가 나오지 않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나?”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느라고 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러자 아들이 균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요.”

■ 옆집 남자

두 남자가 술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옆집 남자.”

“이유가 뭔데?”

“집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오고, 인간성도 좋고, 집안일도 잘 돋고...”

“하긴 우리 옆집에도 그런 남자가 살더라.”

■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주위를 둘러 보던 목사가 다시 말했다.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때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할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말씀해주시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있었는데 다 죽었어.”

■ 아이의 눈물

식당을 운영하는 남자에게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다. 강아지를 키우게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밀었다.

“아빠 강아지 밥 만들어 주세요.”

“애야 일부러 개밥을 만들 필요가 없단다. 저기 손님이 먹고난 음식을 주면 되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은 손님의 식사가 끝나기 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손님이 식사를 끝내고 일어서려는 데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놀란 아빠가 물었다.

“아니 애야 왜 우는 거니?”

아들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저 아자씨가 개밥까지 다 먹어버렸단 말이야!”

■ 사표

왕병원에 걸린 한 남자가 사장을 찾아가 말했다.

“사장님, 다음주에 사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장이 대답이 없자 남자가 다시 말했다.

“끌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다음주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시끌벅적 e-스타



섹시한 그녀... '김연아 따라하기' 열풍

우아한 몸짓으로 빙상 위를 누비는 '괴계 요정' 김연아. 그녀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김연아의 경기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인터넷 최고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인기 동영상이고 김연아의 일거수일투족도 속속 동영상에 담기면서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섹시한 숙녀로 변신하고 있는 김연아의 화장법 따라하기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강렬한 눈빛 연기로 관중들을 사로잡아버린 김연아를 따라 스모키 화장을 배워보자!

청순하고 귀엽던 피겨 소녀에서 남성팬들의 가슴 뛰게 하는 섹시 숙녀로 변신하고 있는 김연아를 놀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강렬한 눈매.

우아하고 섹시해진 김연아의 눈매를 연출하기 위해서 컨실러와 파우더는 기본이다. 먼저 베이

지색 계열의 '반짝반짝' 팔 셋도를 눈두덩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준다. 젤 타입 아이리너를 이용해 속눈썹을 채우듯 라인을 그려나가는 게 다음 단계. 아이리너로 언더라인까지 그려준 뒤 눈조리를 살짝 옮겨주어 섹시함을 강조하자.

아이리너로 라인 그리기가 끝나면 브러시를 이용해 밝은 브라운 셋도를 눈두덩이 중간까지 발라준다. 포인트 브러시로 디크브라운 셋도를 덜발라주면서 명암을 주면 그윽한 눈매가 완성된다.

스모키화장의 포인트는 세심하게 올라간 속눈썹이다. 브러시를 이용해 속눈썹을 삼 단계로 살살살짝 옮겨준다.

마지막 단계, 마스카라로 눈썹 뿌리부터 지그재그로 블라울려주면 김연아표 스모키 화장이 완성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하요우 니혼고 <1213>

I'm getting kind of tired.

약간 피곤해지는데.

A : I'm getting kind of tired.
B : When would you like to leave?
A : I'm ready whenever.
B : Okay, I'll get my things.

A : 약간 피곤해지는데.
B : 언제 너는 떠나고 싶니?
A : 언제든지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B : 알았어, 가서 내 물건을 찾아와야겠다.

* kind of ~ = 약간 ~
* whenever : 언제든지 간에
* get things = 물건을 찾아오다
* 언제 그 서류를 완성할 거니?
= When would you like to complete the documents?

いつもお世話(せわ)になっていますから。

늘 신세 지고 있는 걸요.

A : 今日は私におごらせてください。

B : いいですよ。そんなに氣(き)を使(つか)わなくとも。

A : いいえ、いつもお世話(せわ)になっていますから。

B : そうですか。それじゃ、お言葉(ことば)に甘(あま)えて。.

A : 오늘은 제가 낼게요.

B : 괜찮아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A : 아뇨, 늘 신세 지고 있는 걸요.

B :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니 호의를 감사히 받을게요.

おごらせる : おごる(한국내다)의 사역형

氣(き)を使(つか)う : 신경 쓰다

お世話(せわ)になる : 신세 지다

니하오 쟁구워 <290>

我属馬。

나는 말띠입니다.

A: 哥哥你属什么?

Gege ni shu shenme?

B: 我属马。

Wo shu ma.

A: 姐姐你属什么?

Jiejie ni shu shenme?

B: 我属老虎。

Wo shu laohu.

A: 什么 这个 特别 呀?

Ma shen zhe gei tebie ya?

B: 老虎 [laohu] (십이지의) -띠다

鳥 [niao] 말

老虎 [laohu] 호랑이

한자 이야기 <930>

雪泥鴻爪(설니홍조)

눈설, 진흙 니, 기러기 흥, 손톱 조

설니홍조(雪泥鴻爪)는 눈 내린 진흙탕 위의 기러기 발자국이 있다. 진흙 위의 눈이 녹으면 질퍽거리는 진흙만 남고 눈 위에 새겨진 기러기 발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도 이와 같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말은 송(宋)나라의 유명한 시인 소식(蘇軾)이 26세에 지은 한시 '화자유연지구'에서 유래한다. 1056년 소식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동생 소철(蘇轍)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당시 송나라의 서울 개봉(開封)으로 들어갔는데, 긴 여정에 타고 온 말은 지쳐 죽어버려 임시변통으로 말을 빌려 하남성 면지의 한 절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5년 뒤 소식은 섭서성의 관직에 부임하러 가던 길에 다시 면지의 그 절에 들렀다. 하지만 환대하던 스님은 이미 입적하였고, 벽에 써놓은 시도 뭉개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마침 하얗게 눈 내린 절 앞마당에 먹이를 찾으려 기러기가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문득 인생의 덫없음을 깨닫고 시를 지었다. "정처없는 우리 인생 무엇 같을까? / 눈밭을 배회하는 저 기러기 같으리 / 어쩌다가 잠시 내려와 발자국을 남기지만 / 기러기 날아가면 행방을 어찌 알리/-후락-"

리빙 센스

◇이마 주름 없애기

이마 근육을 움직여주면 탄력이 불어 주름을 예방할 수 있고 깊게 패인 주름을 완화할 수 있다. 3회 반복해서 실시한다.

1. 한쪽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15초 동안 지그시 누른 다음 사선으로 10회 문지른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10회 문지른다.

2. 아래의 가로 주름에 양손 엄지와 검지를 댄다. 주름을 꼬집듯이 집어 3초간 유지한 뒤 끝기듯 좋아준다.

◇눈가 부기 없애기

눈두덩의 신진대사를 높여 눈가의 부기가 빠진다. 모든 동작을 3회씩 반복한다.

1. 양쪽 손바닥을 눈에 대고 20초 동안 지그시 누른 다음 눈 주위의 뼈를 따라 꼭꼭 눌러가며 짜압한다.

2. 양손 검지를 관자놀이에 대고 3초간 지그시 누른 다음 앞뒤로 10회씩 원을 그리듯 돌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8일(음 11월 21일 壬辰)

子 36년생 가시가 시끄럽고 어수선한 형상이 발생한다. 48년생 겨우 겨우 보내는 날이 될 수도 있다. 60년생 괴짜민트를 입을 수 있다. 72년생 내 것 잃고 송사 담할 수도 있다. 84년생 대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행운의 숫자 : 07, 42

丑 37년생 메시에 조심을 더해도 불만스럽게 고칠 수 있다. 49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편하게 하나 사시는 금화다. 61년생 부부 사이에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 73년생 사기꾼이 주변에 맴돈다. 85년생 송사가 생겨도 승진으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08, 39

寅 38년생 스스로 자제하는 경이요. 5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될 때 우려가 있다. 62년생 신남과 종도를 살피며 사시에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 74년생 실사를 사기 도난의 손해가 있으니